

# 해외 고등교육 정책소식

**세계 : UNESCO 2009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UNESCO 2009 세계고등교육대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1차 대회 이후 11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 중 하나로서, 대회선언문 및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등교육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해야 하며, 지식사회의 복잡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시스템에서의 다양성을 신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 : Alternative Global University Rankings System by European Consortium**

중국 상해교통대학의 세계대학랭킹이나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대학랭킹과 같은 랭킹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부가 새로운 형태의 대학랭킹평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말 디자인이 완성되고, 2011년 5월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랭킹평가가 갖고 있는 제한된 평가영역, 방법론상의 문제점, 절차상의 불투명성 등을 극복하여, 교육·연구·지역사회연계·국제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게 되며, 대학랭킹을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출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어 그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미국 : Research on University Autonomy-University Rankings Connection**

영국과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과 세계대학랭킹이 대학의 자율성 수준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흥미를 끌고 있다. 하버드, 스탠포드, 브뤼셀자유대학교 공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대학들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학부학생 선발에서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랭킹 순위가 높았으며, 미국 주립대학들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와 같이 자율성이 높은 주(州)에 소재한 대학들의 연구생산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 Structural Changes in Government Department for Higher Education**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대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기존의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에서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 통합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고등교육분야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현 정부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간과한 채 단순히 산업계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난이 맞서고 있다.